

September 23, 2006

생생하고 빠른뉴스
고뉴스

독일로 떠난 박근혜 “국가정상화 방안 찾을 것”
[고뉴스 2006-09-23 14:19]



(고뉴스=김성덕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9박10일 일정으로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 아데나워재단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첫 번째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부들을 만나 한-유럽간 경제, 통상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독일로 이동, 오는 28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면담하고, 재독 한인회 주최 환영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출국에 앞서 밝힌 짧은 소감문을 통해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지녔으며,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한 나라”라며 “국가 정상화를 통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찾고, 통일 과정의 교훈과 통일 후 후유증 극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번 해외방문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경제와 통일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에 갈 때 남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오래 전에 독일로 가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던 교민들과의 뜻 깊은 만남이 있기 때문”이라며 교민들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방문에는 한나라당 김기춘, 최경환, 심재업 의원과 이정현 공보특보가 수행한다.

(다음은 박근혜 의원이 출국 전 남긴 소감문)

저는 내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벨기에와 독일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난 당대표 재직시절에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았었지만, 북핵문제와 피습 등으로 일정이 계속 뒤로 연기되다가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에 당시 야당인 기민당의 당수였던 메르켈 수상을 만났을 때, 양당이 서로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그 날 이후, 약속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지녔으며,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국가 정상화를 통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찾고, 통일 과정의 교훈과 통일 후 후유증 극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와 통일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에 갈 때 남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오래 전에 독일로 가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던 교민분들과의 뜻 깊은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녀오는 동안, 이곳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아껴 주시길 바라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kimsd@gonews.co.kr
<인터넷 신문 공인 1등 고뉴스 © 고뉴스 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eptember 23, 2006

Übersetzung

Park Geun-hye auf Deutschlandreise: “Für einen neuen koreanischen Aufschwung”

Die Abgeordnete Park Geun-hye wird sich zehn Tage lang auf Einladung der Konrad-Adenauer-Stiftung in Europa aufhalten. Am 28. September wird sie die deutsche Kanzlerin Angela Merkel treffen, um mit ihr über eine nachhaltige Zusammenarbeit beider Parteien zu sprechen.

Als Parteivorsitzende hatte sie mehrmals Einladungen von der Konrad-Adenauer-Stiftung erhalten, konnte aber wegen des Nordkoreaproblems und anderer Angelegenheiten erst jetzt die Einladung annehmen.